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554.22 (-454.59)		760.82 (-63.06)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67 (+4.50)		1342.80 (+4.50)

코스피 7% ‘뚝’… 한때 5500도 붕괴

美 금리 공포·AI 투자수익 우려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세 보여
삼성·하이닉스 각각 9%·11%↓
AI·반도체 관련기업 주가 직격탄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15일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7.57% 폭락한 5554.22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에는 5450.81까지 밀렸다. 종가 기준 6000선이 깨진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시가총액은 4580조원으로 이날 하루에만 375조원 가량이 증발했다. 외국인이 약 3조 6000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도 7.65% 하락 마감했다. 하락 폭이 커지자 오전 한때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코스피·코스닥에서 모두 발동됐으며, 오후에는 서킷브레이커도 동반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급등락때 20분 동안 모든 매매를 중단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에서 3조 6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팔자’를 이어갔다.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도 208조 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48%, 11.06% 폭락한 21만원과 126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 닛케이225지수(-4.90%), 대만 가권지수(-3.41%)를 비롯해 중국·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약세는 전날 미국에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금리 인상 공포가 번지면서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



코스피가 454.59포인트(7.57%) 하락한 5554.22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시각) 미국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3.6%를 웃돈 데다 8월 상승률 3.4%보다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전날 22%에서 37%로 뛰었다.

금리 인상 공포는 AI 투자를 위해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 AI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는 각각 15%, 10% 폭락했다. 높은 이자 부담이 AI 투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주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이크

론과 인텔은 4% 넘게 하락했고, AMD와 샌디스크도 5% 이상 급락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를 넘는 점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4일(현지 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상승은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높여 실적 악화를 부를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 이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돼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 주가엔 악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임단협 등 진통… 조선·철강, 노무부담 가중

‘노란봉투법’에 교섭의제 이견 찾아
하청교섭 법정분쟁 등 갈등 고조

조선·철강업계가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더해 하청노조와의 원청교섭 문제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고용안정 등 교섭 의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노무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급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2차 원청교섭을 열고 고용·노동조건 승계, 임금·복지 등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앞서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일 기각돼 8일 첫 교섭에 나섰다.

하청교섭이 시작됐지만 정규직 임단협은 난항이다. 사측은 기본급 13만 8689원 인상과 일시금 750만원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확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정규직 임단협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하청교섭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노사는 지난 2일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13일 제23차 본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고정급 중심 임금체계와 옛 HD현대미포와의 단체협약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조와는 지난 3월 교섭요구 확정

공고 이후 6개월 넘게 상견례도 못 했다. 사측은 휴가비·산업안전 등 6개 의제만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성과급·고용안정·노조활동 보장까지 9개의 제를 요구한다. 노조는 이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철강업계에서도 하청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하청교섭 관련 법적 분쟁에 정규직 임금협상 난항까지 겹쳤다. 노사는 지난 14일 기본급 인상을 기존 2.0%에서 2.2%로, 일시금을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은 사측 제시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서울 아파트 토허신청, 5개월 만에 반등

9월 신청건수 24%, 가격 1.43%↑
강남3구·용산, 신청 늘고 가격 하락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신청가격 흐름은 권역별로 엇갈렸다. 9월 신청 건수는 전월보다 24.1% 늘었고 신청가격은 서울 전체 기준 1.43% 상승했다. 하지만, 강남3구·용산구는 오히려 0.32% 하락했다.

서울시는 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이 367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8월 2963건보다 715건 늘어난 규모다. 신청 건수는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2963건으로 4달 연속 감소하다 9월에 증가했다. 9월 신청 건수는 4월의 41.3%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용산구의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신청은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602건에서 778건으로 29.2%, 서남권 4개 구는 549건에서 716건으로 30.4% 증가했다. 강북권 10개 구는 1457건에서 1646건으로 1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작았지만, 신청 건수 자체는 네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에서 강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전월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강북권 비중은 4월 40.7%에서 8월 49.2%까지 4달 연속 상승했으나 9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9월 권역별 비중은 강북권 44.8%, 한강벨트 21.2%, 서남권 19.5%, 강남3구·용산구 14.6% 순이었다.

토허 신청가격은 서울 전체에서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2.45%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강북권도 2.07% 상승했다. 한강벨트는 0.19% 올라 상승 폭이 둔화했고,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다. 8월에는 서울 전체가 0.44% 상승한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와 서남권은 각각 0.49%, 0.46% 하락했었다.

서울시는 강북권과 서남권의 상승 배경으로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점을 들었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저러니까李 지지도 떨어져”…박지원, 민주당 내홍에 쓴소리
▲안철수 “北 지리도발을 ‘재수없는 사고’”?…李, 국군통수권자 맞나”
/사진 뉴시스

▲한미, 전작권 전환 새 기준 놓고 입장차…“조건 바뀌어” vs “곧대 옮기면 불가”
▲정부, ‘韓 인터넷 속도 세계 22위’에 “측정 기준 없는 통계 유감”

▲특검 “전국 30곳서 투표자수 허위 입력”…중앙선관위 등 7곳 압쇄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소방 노조 “명예 훼손 망언” 사과 요구